논어 7편 술이 27장 · 원문·풀이

子曰：「蓋有不知而作之者，我無是也。多聞，擇其善者而從之，多見而識之，知之次也。」

독음 · 자왈 개유부지이작지자 아무시야 다문 택기선자이종지 다견이지지 지지차야

쉬운 풀이(요약) · 알지 못하면서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다. 많이 듣고 좋은 것을 가려 따르며 많이 보고 기억하는 것이 배움의 길이다.

AI가 원문을 대조해 작성한 학습용 요약입니다. 해석이 갈리는 구절은 다른 풀이도 있습니다.

글자 뜻과 음(대표 훈음 · 문맥별 독음은 위 본문 참고)

子 아들 자 / 曰 가로 왈 / 蓋 뚜껑 개 개 / 有 있을 유

不 아닐 불 / 知 알 지 / 而 말이을 이 / 作 지을 작 작

之 갈 지 / 者 놈 자 / 我 자기 아 아 / 無 없을 무 무

是 이 시 시 / 也 어조사 야 / 多 많을 다 다 / 聞 들을 문 문

擇 가릴 택 택 / 其 그 기 / 善 착할 선 선 / 從 좇을 종 종

見 볼 견 견 / 識 알 식 식 / 次 버금 차 차

저본: 위키문헌 論語 · 편별 고정 판본과 전체 교정 기록은 출처 페이지를 참고하세요.